

 POSRI 보고서

인도 모디노믹스, 믿을까 말까?

임정성 수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jsimm@posri.re.kr)

이대우 수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ldw@posri.re.kr)

[목 차]

1. 모디정부 출범 1년 성과
2. 모디노믹스 믿고 싶은 근거들
3. 모디노믹스 믿기 힘든 복병들
4.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인도 모디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난 현재,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림
 -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모디 총리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음
 - 반면, 단기적인 개혁 실행과 성과를 기대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실망
 - 종합하면, 외교와 정치 성과는 우수했고, 혁신적인 정책도 많이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사업환경 개선이 지연되어 가시적인 경제회복력이 약한 상태
- 모디노믹스 믿고 싶은 근거들
 - ① **양호한 펀더멘털** : 3D(민주주의, 인구구성, 수요) 장점, 내수중심 경제
 - ② **올바른 개혁정책 방향**: 토지수용법, 법인세율 인하, 단일간접세 등 친기업 정책과 메가 프로젝트 통한 인프라 확대 및 산업 발전, 도시화 추진
 - ③ **외국자본 색도** : 모디 정부 출범 후 외국인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급증
 - 일본 등 강대국들, 전략적 차원에서 對인도 협력 및 투자 강화
 - ④ **국제적 신뢰** : 모디 총리와 인도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신뢰가 경제에 도움
- 모디노믹스 믿기 힘든 복병들
 - ① **복잡한 정책결정 메커니즘** : 2019년 총선까지 인도국민당의 상원 장악 난망
 - 또한 연방체제에서 주정부 비협조로 개혁정책 실행 추진력이 낮음
 - ② **지지부진한 사업환경 개선** : 인프라 열악, 조령모개式 조세제도 운영
 - 높은 임금상승률, 우수 인력 구인난, 정치화된 전국노조 등도 고질적 문제
 - ③ **소외계층 저항 고조** : 농민, 천민/부족민, 무슬림, 기독교인 등의 반감
 - ④ **대외변수 악재 잠재** : 미국 금리인상, 선진국 경기부진, 유가 상승 우려
-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시사점 : 인도사업 경험과 노하우가 그 동안 축적된 만큼 ‘묻지마식’ 진출보다는 업종, 지역, 진입방식을 세분화하여 접근 필요
 - 모디노믹스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수요, 경쟁강도, 기술 수준 등 빠르게 변하는 인도시장 상황 Follow-up 필요
 - 기업들은 앞으로도 제조업 중심 진출을 지속하되 서비스업과 연구개발 분야, 건설업도 점진적인 진출 확대 필요
 - 영토가 광활하고 지역별로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단일시장으로 접근하면 시행착오 우려(시장 및 고객을 세분화하여 대응)
 - 인도는 사업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단계적 진입이 바람직하고, 높은 현지화 수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합작 및 M&A 방식 활용도 검토 필요

1. 모디정부 출범 1년 성과

□ 강력한 카리스마의 모디 총리는 경제와 정책, 정치외교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습관과 의식까지도 바꾸는 ‘국가 대개조 사업’ 추진 중

- ‘Clean India’ 캠페인 공표 후 직접 빗자루를 들고 거리에 나선 것은 ‘청소는 불가촉천민의 일’이라는 전통적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한 것

□ 기대가 컸던 모디 총리에 대한 평가는 현재 다소 엇갈리고 있음

-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모디 총리에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음
 - 인도 유수 주간지 ‘India Today(15.4.2)’ 조사에 따르면, 국민 22%는 모디 총리의 지난 1년 성적이 ‘우수’하며, 38%는 ‘양호’하다고 생각
 - 11%만이 ‘형편없다’고 응답, 26%는 ‘보통’으로 답변
 - * 인도 전역 12,0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2015.3월)
 - 총리의 최대 업적으로 약 34%가 ‘인도의 국제이미지 향상’을 꼽았고, 취임 후 ‘경제상황이 개선되었나’는 질문에 약 36%가 그렇다고 대답
 - 또한 30%는 모디 총리를 인도 역사상 최고의 총리라고 응답
 - * 2위는 모디총리 소속 인도국민당(BJP)의 바지파이 총리, 3위는 인도국민회의(Congress)의 인디라 간디 총리
- 반면, 단기적인 개혁 실행과 성과를 기대했던 인도 기업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실망하고 있음
 - 헤지펀드 매니저인 짐 로저스는 최근 모디 정부가 ‘말만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며 취임 후 매입한 주식을 팔고 인도시장을 떠나겠다고 밝힘
 - 인도상공인연합회(CII)도 정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혁 실행을 요구
 - 참고로 타타그룹의 라탄 타타 명예회장은 “모디 총리가 약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지켜보자는 입장
- 종합하면, 외교와 정치 성과는 우수했고 혁신적인 정책들도 많이 발표했지만, 사업환경 개선이 지연되어 가시적인 경제 회복력이 약한 상태
 - 원유 등 낮은 국제상품 가격, 9년래 최저 수준의 물가 등 우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과 건설경기,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함
 - 언론에서 인도가 중국 경제성장률을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계속 찬사를 보내지만, 실은 기준시점 변경에 따른 상향조정 결과
 - GDP성장률(FY’14 1Q, 2Q) : 종전 5.7%, 5.3% → 신기준 7.0%, 7.8%
 - 3분기(’14.10~12) 건설 성장률은 1.7%, 총고정자본형성도 1.6% 성장

<인도 모디정부 출범 1년 성과>

▶ 외교적 성과 : 미, 중, 러 정상외 방인, Look East & Link West 외교정책 등 ‘우수’				
-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 ‘공화국의 날’ 주빈 참석. 미국과 민간 핵협정 타결 ·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도 인도 방문, 전통적 우방 강화 및 투자 약속 - 서방 강대국(미, 일, 프, 독) 및 영국 연방국(캐, 호), 남아시아 등 14개국 순방 · 첫 순방지로 ‘부탄’ 선택, 남아시아 전통적 패권 과시(네팔, 스리랑카, 미얀마도 방문) · 금년 5월 14일부터 중국, 몽골, 한국 방문으로 Look East 정책 다시 강화 예정				
▶ 정치적 성과 : 5전 4승 1패로 ‘우수’				
- 2014년 5월 이후 주의회 선거 결과 4개 주에서 단독 또는 연정으로 집권 - 수도권 델리주에서 참패(연방하원 의석 100% 확보 반면 주의회 의석수 3석/70석 불과)				
▶ 경제적 성과 : 유가 하락, 작황 호조 등 우호적 변수 영향으로 ‘양호’				
	GDP성장률	소비자물가	FDI 유입	주가(Sensex지수)
1년 전	5.3% (‘14.1~3)	8.25% (‘14.3월)	360억\$ (FY’13, 1년간)	22417.8 (‘14.4.30)
최근	7.5% (‘14.10~12)	5.37% (‘15.2월)	412억\$ (FY’14, 11개월간)	27011.3 (‘15.4.30)
▶ 정책적 성과 : 6대 주요 정책 발표 불구, 실행적 측면에서는 ‘실망’				
- Make in India(제조업 육성) - Clean India(보건위생 환경 개선) - Banking for All(금융서비스 대중화) - Digital India(전자정부, 광대역통신 확대) - Smart Cities(도시 인프라 개선) - 기획위원회 폐지(네루사회주의식 계획경제 유산)				

자료 : 저자 작성

2. 모디노믹스 믿고 싶은 근거들

□ 낙관근거① : 양호한 펀더멘털

- 모디 총리는 일본·미국·EU 등 서방 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설득 논리로 ‘3D 장점’을 내세우고 있음
 - 3D는 Democracy(민주주의), Demography(인구구성), Demand(수요) 의미
 - 경쟁 상대국인 중국을 염두에 둔 측면이 강한데, 이왕이면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
 - 화술이 뛰어난 모디 총리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의미하는 FDI를 ‘First Develop India’로 재정의하면서 인도의 경제개발 과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

<인도의 장점 3D>

①민주주의(Democracy)	- 미국·일본 등 서방과 민주주의 가치 공유 - 책임 있는 대국 인식(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②인구구성(Demography)	- 인구 50% 이상이 25세 이하(2020년 기준 평균연령 29세) - 생산가능 인구 증가로 '인구 보너스' 효과 지속 확보 - 높은 교육열, 영어 능숙한 전문인력 다수 보유
③수요(Demand)	- 중산층 2억 5천만 명에서 10년 후 5억 명으로 증가 예상 - 1991년 개혁개방 이후 출생한 세대가 사회 주역으로 등장

자료: Chindia Plus 참조 수정 (2015.3)

○ 중국이 최근 내수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려고 하는 반면, 인도는 전통적으로 내수비중이 높고 IT SW, 금융 등 서비스산업도 발달

- GDP 내 민간소비 비중이 60%(FY2014)로 대외변수에 상대적으로 안정적
- 서비스업 비중도 63.5%로 높고, 건설과 유틸리티를 제외해도 53%(FY'14)

○ 최근 인도는 주요 신흥국 중 금융 및 외환 안정성에서 가장 양호

- 2013년 하반기 환율이 급등해 인니, 브라질, 터키, 남아공과 함께 '5대 취약 국가'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모범 신흥국으로 인식
- 높은 외환보유액(3,446억\$, 세계 9위), 관리가능한 수준의 경상적자(-1.7%)와 재정적자 비율(-4.1%) 등을 고려할 때 외환 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낙관근거② : 올바른 개혁정책 방향

○ 모디 총리는 취임 4일만에 10대 국정 우선과제를 발표하는 등 주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캠페인화하여 발표

- Clean India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2일 마하트마 간디 탄생 국경일 연설에서 공개
- Make in India 프로그램은 역시 지난해 8월 15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처음 공개한 후 9월 24일 정식으로 개시
 - 자동차, 제약, 전자 등 25개 업종을 육성하여 제조업 비중을 15%에서 2025년 2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 이를 위해 원자재, 중간재, 첨단산업 부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기술 서비스 및 로열티 서비스세도 15%p 인하 계획
 - 이를 통해 매년 1,2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4년 내 9천억 달러로 두 배 늘린다는 목표

- 친산업,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개혁법안들을 입안하고, 의회 승인 확보를 위해 노력 중
 - 만만한 싱 정부에서 미뤄왔던 중앙과 주정부를 포함하는 단일 간접세제 법안 GST(상품 및 서비스세)를 2016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일정 발표
 -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4년 내 25%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할 계획(법인세율 세계 평균 23.64%, 아시아 평균 21.91%)
 - ‘경제적 행동’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모디 총리는 토지인수법과 광산광물법(경매로 광산 배정)의 경우 행정명령 조치로 시행
- 한편, 대규모 산업회랑 개발을 통해 인프라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화까지 연계시킨다는 방침
 -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건설계획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 플랜 단계가 마무리 국면에 있으며, 첸나이~방갈로르, 뭄바이~방갈로르, 암리차르~델리~콜카타를 연결하는 산업회랑도 추진 또는 검토 중
 - 인프라가 완비되고 친환경적인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계획은 산업회랑 건설 등과 연계하여 향후 10년 이상 추진 예정
 - 일본정부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DMIC 내 6개 스마트시티 건설은 일본기업 컨소시엄이 맡을 예정
 - 미국과 독일도 각각 3개의 스마트시티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외에 스페인, 싱가포르,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도 협력 논의 중

□ 낙관근거③ : 외국자본 쇄도

- 중국과 같은 믿을만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국제자본은 모디 총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도시장에 대거 유입
 - '14년 4월~'15년 2월까지 FDI 유입액은 412억 달러로 전년비 30% 급증(Make in India 발표 후 5개월간 제조업에 69억 달러 유입, 전년비 +45%)
 - 주요 투자국은 모리셔스(조세피난처), 싱가포르, 영국, 일본 순
 - 업종은 서비스업, 통신, 무역, 자동차, 컴퓨터(SW, HW), 의약·제약 순
 - 같은 기간 외국인기관투자(FII) 순유입액은 389억 달러로 전년동기의 50억 달러에 비해 7.8배나 증가
- 강대국 정부들은 전략적 차원에서 對인도 협력과 투자 강화를 약속
 - 작년 8월 모디 총리의 일본 방문시 아베 총리는 향후 5년간 ODA(공적 개발원조) 포함 총 335억 달러의 투자 및 금융지원을 약속
 - 일본과 인도는 금년 4월 30일 향후 5년간 인도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증시키고 스마트시티 개발, 인프라 개발, 정보통신분야 협력, 전략적 업종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에서 협력 강화에 합의

- 오바마 대통령도 금년 초 인도 방문시 향후 2년간 40억 달러 투자 약속과 함께 양국 통상규모 확대 및 국제공조 강화에 합의
- 시진핑 주석은 작년 9월 방인 시 향후 5년간 200억 달러 투자 약속
- 푸틴 대통령도 작년 12월 방인 시 원자력 발전소 12기 건설(400억 달러 상당), 향후 10년간 매년 20만 배럴 원유공급, 무기 합작생산 등에 합의

□ 낙관근거④ : 국제적 신뢰

- 2013년 9월 인도중앙은행 총재에 라구람 라잔이 취임하자 루피화가 크게 안정됐는데, 라잔에 대한 국제금융 시장의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
 - 라잔 총재는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시절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를 경고한 것으로 유명해졌으며, 이후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를 역임
 - 취임 후 물가안정을 강조하며 금리를 내리지 않아 재무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지만, 물가가 안정되자 금년에 두 차례나 금리인하를 단행
- 모디 총리가 올바른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강한 실행의지를 보이자 국제 기관들은 인도 경제에 대한 낙관으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
 - World Bank는 인도 GDP 성장률을 2015년 7.2%, 2016년 7.5%로 전망
 - IMF는 금년 4월 수정전망에서 2014년 7.2%, 2015년 7.5%, 2016년 7.5%, 2020년 7.8%로 발표(중국 전망은 각 년도 7.4%, 6.8%, 6.3%, 6.3%)
- 지난 4월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인도 신용등급에 대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전망 수정
 - 신용등급은 기존 Baa3로 유지했지만, 양호한 정책 수립, 거시경제, 인프라, 제도 면에서 개선되고 있어 전망 기조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힘
 - S&P는 작년 9월 이미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바 있음

<모디노믹스의 성공가능성 낙관 근거>

①양호한 펀더멘털	- 3D(민주주의, 인구구성, 수요) 장점 보유 세계 유일 국가 - 내수 및 서비스업 중심 경제구조, 외환 안정성
②올바른 개혁정책 방향	- 단일간접세, 법인세율, 토지수용법 등 친기업 정책 승인 노력 - 메가 프로젝트 통한 인프라와 산업 발전, 도시화
③외국자본 쇄도	- 외국인 직접투자(FDI) 및 간접투자(FII) 급증 - 일본 등 강대국들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對인도 협력 강화
④국제적 신뢰	- 모디 총리와 인도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국제적 신뢰 - 국제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자료: 저자 작성

3. 모디노믹스 믿기 힘든 복병들

□ 복병요인① : 복잡한 정책결정 메커니즘

- 집권 인도국민당이 상원을 장악하지 못해 개혁법안 승인에 진통
 - 상원의회는 주의회 선거 결과에 비례하여 정당별로 상원의원을 배출
 - 현재 인도국민당은 상원 250석 중 46석 확보에 그침(1/5 이하 수준)
 - 6년 의원 임기, 주선거 일정 등 고려시 인도국민당이 2019년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상원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특히 금년 2월 델리 주선거 참패 분석 결과 연방 총리로는 강한 국가를 위해 모디를 택했지만, 주선거에서는 민생을 돌보는 정당을 선호
 - 따라서 향후 주선거에서도 전국적 이슈가 아닌 지역이슈들을 더 잘 다루는 지역정당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금년 11월 비하르주 예정)
- 이해관계가 다른 주정부의 비협조도 전국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로 작용
 - 싱 총리 시절 단일세제인 GST 실행이 주정부들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으며, 소매유통업 FDI 개방도 일부 주에서만 실행되고 있음
 - 현재 인도국민당은 29개 주 가운데 11개 주에서만 단독 또는 연정으로 집권(국민회의는 9개 주, 지역정당들이 나머지 9개 주에서 집권)
 - 모디 총리는 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금년 1월 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 Aayog(NITI Aayog)를 신설, 정책수립 과정에서 주정부들 적극 참여시키겠다고 공언
 - Bottom-up 방식으로 주정부 입장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모디 총리의 강한 개혁의지와 신속한 실행과는 대치되어 딜레마 상태

□ 복병요인② : 지지부진한 사업환경 개선

-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 증액 및 실행력 제고 방안도 도입하지만, 사업 성격상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
 -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승인, 사업모델 확정, 발주 공개입찰, 공사 기간 등 수년 소요
 - 높은 물류비와 전기·가스·용수 등 유틸리티 비용은 시장 잠재력만 바라 보고 인도 제조업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손실 초래 예상
- 인도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갑작스러운 과세정책 변경은 악명이 높는데, 이는 외국기업들 인도시장에서 떠나게 하거나 신규 진입을 저해
 - 4월 재무장관이 외국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수익의 20%를 최저 한도세(MAT)로 5년 전부터 소급해서 과세하겠다고 발표해 시장을 놀라게 함

- 이 때문에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8.7억 달러가 순유출되자 인도 정부는 금년 4월 1일 이후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며 수습에 나섬
- 높은 임금 상승률과 이직률, 우수 인력 구인난, 정치화된 전국노조, 고치기 힘든 노동법 등도 외국 제조기업이 인도 진출을 기피하는 이유
 - 자동차업계 등 인도 기업조차 대규모 인력 고용보다 설비 자동화를 선호
- 이런 신속한 사업환경 개선이 어려워 투자심리가 아직도 냉랭한 상태
 - 인도 기업들은 여전히 리스크를 경계하며 대규모 투자계획을 주저
 - 더욱이 이미 대규모 비수익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업계가 추가 신용을 제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투자 유인이 부족

□ 복병요인③ : 소외계층 저항 고조

- 인도국민회의 집권시절 수혜자였던 농민, 천민/부족민들의 개발정책 반대가 거세지고 있음
 - 모디는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공장 건설을 위해 최소 70~80% 동의 조항을 없애고 사회영향평가도 면제하는 토지인수법을 상원에 상정 시도
 - 이에 농민들이 대거 텔리에 올라와 반대시위를 하였으며, 한 명이 자살하여 모디 정부를 곤란하게 함
 - 국민회의의 라홀 간디 부총재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주의회 선거와 차기 총선을 감안할 때 모디 총리가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
- 또한 지방에서 힌두 극우주의 세력의 득세로 이슬람, 가톨릭, 기독교 등 소수 종교 집단과 야당으로부터 비난과 반발이 높아짐
 - 최근 마하라슈트라 주정부가 소 도살 전면금지 조치를 내려 무슬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더 비싼 양이나 닭고기를 소비해야 하는 상황
 - 작년 12월 이후 힌두주의 단체가 기독교나 무슬림 대상으로 반강제적으로 대대적인 개종행사를 열고 있는 것도 강한 반발을 사고 있음

□ 복병요인④ : 대외변수 악재 잠재

- 미국이 금년 말경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인도에도 상당한 여파가 예상
 - 인도의 부채비율이 GDP의 90% 이상이고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경상 및 재정 수지) 상태로 FII(기관투자)의 경우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도 있음
- 주요 수출지역인 EU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회복이 부진하면 인도의 수출 증대 및 경상적자 폭 감축에 어려움 예상
 - 수출비중(FY'13) : EU 16.4%, 미국 12.4%, 일본 6.8%
- 국제유가가 중동지역 정세 불안정 등으로 다시 상승하면 그 동안의 경기회복 호재가 약화되게 됨

- 작년 하반기 이후 50% 이상 떨어진 국제유가로 인해 소비자물가 하락, 무역수지 개선, 유류 보조금 경감에 따른 재정적자비율 목표 달성
- 인도의 원유수입 의존도는 80% 이상(2013년 세계 3위 수입국)

<모디노믹스의 성공가능성 복병요인>

①복잡한 정책결정 메커니즘	- 2019년까지 상원 장악이 어려워 주요 개혁법안 승인 지연 불가피 - 연방체제에서 주정부 비협조로 개혁정책 실행 추진력 낮음
②지지부진한 사업환경 개선	- 대규모 인프라 확대 계획이 실질적인 개선까지 오랜 시간 소요 - 비합리적이고 갑작스러운 과세정책 변경(특히 외국자본 대상) - 높은 임금상승률, 우수 인력 구인난, 해고절차 완화 등 친기업 노동법 개정난
③소외계층 저항 고조	- 농민, 천민/부족민의 개발정책 반대(국민회의 집권시절 수혜자) - 이슬람, 기독교, 가톨릭 등 소수 종교집단의 반발
④대외변수 악재 잠재	- 미국의 금리인상 단행시 여파 및 선진국의 경제회복 부진 - 국제유가의 상승 및 변동성 우려

자료: 저자 작성

4.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시사점

□ **(모디노믹스 판단)** 5년 임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모디노믹스의 성공가능성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

- 잠재된 대외변수 악재가 동시에 터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 성과가 가시화되어 모디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 중국의 급부상으로 G2체제로 재편되는 데 대한 인도인의 '부러움' 시선과 벤치마킹으로 개발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는 점차 형성 예상
 - 휴대폰 등록자 수가 9억 명 이상이고 가족 중심적이며 말하기를 좋아해 구전효과가 강한 인도에서 개발 혜택 소문은 빠르게 확산 가능

□ **(한국의 인도진출 성과)** 현대, 삼성, LG 등 일부 대기업들의 인도 사업 대성공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인도 진출 성과는 부진한 편

- 2014년까지 인도 진출 기업 수는 673사로 중국의 2.8%에 불과(중국은 24,084사, 베트남 3,230사, 인니 1,749사)
 - 대기업 200사(투자금액 비중 86%), 중소기업 296사, 기타는 개인 등
 - 단독투자 비중 68%, 대부분 내수시장 목표, 제조업 투자금액 비중 87%

- 대기업 3사는 '90년대 중반 인도시장 개방 직후 내구소비재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여 '품질 좋은 제품'으로 선점 효과를 크게 누림
 - 승용차와 가전제품 분야에서 1~2위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여 한국 제품과 브랜드, 기업, 나아가 국가 이미지까지 고양시킴('제품' 한류 조성)
- 반면, 같은 시기 인도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노무관리, 합작 파트너, 수익성 문제 등으로 철수한 기업이 많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진출한 중소기업들도 정보획득, 부지확보, 현지금융, 높은 대기업 의존도, 비자 문제 등에서 어려움 호소

□ (진출전략 시사점) 인도사업 경험과 노하우가 그 동안 축적된 만큼 '묻지마식' 진출보다는 업종, 지역, 진입방식을 세분화하여 접근 필요

- 모디노믹스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수요, 경쟁강도, 기술수준 등 빠르게 변하는 인도시장 상황에 대해 Follow-up 필요
 - Make in India를 통한 제조업 육성과 수출 확대, 산업회랑 및 스마트시티 건설 통한 인프라 및 산업기반 확충, Digital India와 Banking for All 통해 투명하고 스피디한 사회로 전환하는 정책 등에서 사업기회 모색
 - 또한 중산층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 고급화, 외국기업과의 경쟁, 로컬기업들의 급성장과 선진 경영시스템 도입 등도 고려 필요
- (업종)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도 제조업 중심 진출을 지속하되 서비스업과 연구개발 분야, 건설업도 점진적인 진출 확대 필요
 - 'Make in India' 정책으로 활성화되는 제조업은 노동집약 업종보다는 최소한 '중간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자본집약업종 기업들의 진출이 바람직
 - 근로의식이 상이해 근태관리와 생산성 제고가 어렵고 이직률이 높은 반면, 경직된 노동법으로 인해 정규직 해고가 어려움
 - 서비스업에서는 'Digital India' 및 'Banking for All' 정책 추진에 따라 IT 및 금융 관련 업종에서 많은 사업기회 발생이 예상되어 대응이 필요
 - 향후 10년내 중산층 인구가 배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통, 물류, 전자상거래 등 내수지향 서비스업을 타겟팅 하는 전략도 검토 필요
 - 또한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고급 두뇌들을 활용하기 위해 기술연구소 설치 등을 검토해 볼만함
 - 일반 건설수주는 원가경쟁력이 없어 산업회랑, 원자력발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계획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일본 등 강대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별로 출혈 경쟁하기보다 한국기업간 컨소시엄을 형성해 수주 경쟁력을 높여야 함
 - 모디 총리 방한 시 100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약속할 예정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시장 및 입지)** 인도는 한국의 33배 규모로 영토가 광활하고 지역별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단일시장으로 접근하면 시행착오 우려
 - 29개 주로 형성된 인도는 크게 5개 권역(북부, 서부, 남부, 동부, 동북부)으로 나뉘는데 인종, 언어, 종교, 문화, 소득수준 등에서 차이가 많음
 - 중간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외국계 기업 대상으로 적극 고객을 발굴하면 시장을 확대하고 한국계 대기업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음
 - 입지는 주별로 시장, 원료, 물류, 유틸리티 등에서 사업여건이 다르고, 주정부의 정책, 세제, 행정역량이 상이해 많은 현장조사 통해 결정 필요
 - 또한 일차적으로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진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근 지역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입지 선정이 필요
- **(진입방식)** 인도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단계적 진입이 바람직하고, 단독, 신설투자 중심에서 합작 및 M&A 방식 활용도 검토 필요
 - 중국이나 동남아와는 사업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성급한 투자 결정보다는 인도에서 사업 리스크 강도를 점차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
 - Agent 수출→ 연락사무소 운영→ 판매지사 설립→ 현지법인 설립 등
 - 내수시장을 공략하고 빠른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높은 현지화 수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JV 투자 및 기업인수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JV나 M&A 투자를 통해 인도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 인력과 자산 등 자원과 역량을 단기간에 흡수하거나 지원받는 것이 가능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전략 시사점>

①업종	- 제조업 : 최소한 '중간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자본집약업종 기업 - 서비스업 : IT 및 금융 관련 업종. 고급두뇌 활용 위한 기술연구소 설치 - 건설업 : 산업회랑, 스마트시티 등 메가 프로젝트에 전략적 대응 필요 · 한국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정부의 對인도 100억\$ 금융지원 활용
②시장 및 입지	- 시장/고객 : 최소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시장 대응. 외국계 기업을 새로운 고객으로 개발하여 시장 확대 및 한국계 대기업 의존도 경감 - 입지 : 주별로 사업여건, 주정부 정책·역량 상이해 현장조사 필수
③진입방식	- 진출속도 : 중국·동남아와는 달라 사업 리스크 강도 점진적 확대 필요 - 합작 및 M&A : 내수시장 공략과 시장경쟁 대응 위해 높은 현지화 수준이 요구돼 JV 투자 및 기업인수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 필요

자료: 저자 작성

[참고자료]

[보고서]

김찬완, "민주주의, 인구, 수요... 3D 인디아, 중국보다 강해질 수 있는 힘", 「Chindia Plus」, 포스코경영연구원, Vol. 102, 2015.3

미래에셋증권, "인도 외국인 투자 세금 추징에 자금이탈", 「Global Focus」2015.5.4

정호영, "인도 주선거 결과, 모디, 델리서 '보통사람당'에 참패, 주선거 연패 시 개혁차질 우려", 「Chindia Plus」, 포스코경영연구원, Vol. 103, 2015.4

이용외,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조충제, "인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일본 기업 주도, 미·독 등도 관심", 「Chindia Plus」, 포스코경영연구원, Vol. 104, 2015.5

조충제외, 「인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인도 협력확대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조충제외, 「한·인도 수교 40주년: 투자 부문 성과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홈페이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인도정부 부처 홈페이지(DIPP, CSO, PMO)

IMF, World Bank 홈페이지

Wikipedia.org, Simplifiedlaws.com 홈페이지

[언론]

한국경제, "다시 뛰는 '코끼리 경제'.. 인도, 모디노믹스 타고 세계경제 엔진으로", 2015.4.19

Business Standard, "India, Japan sign action plan to double investments in 5-years", 2015.5.1

India Today, "India Today-Cicero Mood of the Nation Opinion Poll: End of honeymoon for Modi, still the best PM", 2015.4.2

LiveMint, "So far, the Modi government has done nothing but talk: Jim Rogers, still the best PM", 2015.4.23

Rediff.com, "Six months in power: Modi's 6 big ideas to transform India", 2014.11.25

WSJ, "India Inc. Is Still Ailing as Modi Nears One-Year Anniversary", 2015.4.16